

# 전남도청 여자 펜싱 에베·사브르 단체전 동반 우승

###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에베 유단우 개인전 동메달도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60회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여자 펜싱 에베팀과 사브르팀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각각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전남도청은 창단 첫 두 종목 단체전을 석권, 전국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유진실·김광은·박소형·유단우는 에베 단체전 8강전에서 부산시청을 45-37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 강원도청을 37-36으로 따돌리고 결승무대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광주서구청을 44-38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김지현·박다은·손정민·최세민도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안산시청을 45-31로 제압,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에베 개인전에서 유단우(전남도청)는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에베와 사브르 단체전 동반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내 기쁘다"며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해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펜싱팀. 왼쪽부터 박소형(앞줄 왼쪽부터)·유단우·유진실·김지현·김시은. 김광은(뒷줄 왼쪽부터)·김수민 코치, 박다은·손정민·최세민, 김용을 감독, 전수인. <전남도체육회 제공>

## 김국영, 비공인 한국신기록 타이

### 육상 100m 준결승서 10초07... 뒷바람에 공식기록 인정 안돼

광주시청 김국영(31)이 자신이 보유한 육상 남자 100m 한국신기록 타이기록을 세우고도 풍속 초과로 기록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국영은 6일 강원도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준결승 1주에서 10초07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6월 27일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자신이 수립한 한국신기록과 같은 기록이다. 하지만 김국영의 레이스 당시 뒷바람(초속 2.3m)이 불었다. 100m에서는 바람이 초속 2.0m 이하가 돼야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준결승 기록은 '비공인'이 됐다.

예선에서 아킬레스 통증을 느낀 김국영은 결승에서 다시 한번 도전했으나 이번에는 출발이 좋지 못했다.

김국영은 10초15로 피니시라인을 통과, 대회 신기록 우승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지난날 2일 제50회 KBS배전국육상경기

대회에서 10초14를 기록했다. 당시 김국영은 강기팔살로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초1대의 기록을 세워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페이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바람만 도와준다면 한국신기록은 물론 한국육상의 꿈인 9초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김국영은 이달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은 초청받지 못했다. 랭킹포인트 순위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세계육상연맹이 랭킹포인트 48위까지만 대회에 초청하고 예년과 달리 결연이 생겨도 총원하지 않기로 규정을 바꾸면서 6회 연속 세계육상선수권 출전은 무산됐다.

김국영은 오는 8월 22일 일본에서 A급 선수들만 출전하는 대회에 초청을 받아 트랙에 서고 같은 달 30일 익산에서 열리는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TF 전국실업육상경기 Championship 대회(Final 시리즈)에서 기록에 도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필릭스, 10회 연속 세계육상선수권 출전

### 1600m 혼성 계주 멤버 포함

'모범생 스프린터'에서 '여성 인권의 아이콘'으로 영역을 넓힌 엘리스 필릭스(37·미국·사진)가 '은퇴 시즌'에 열리는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600m 혼성 계주 멤버로 출전한다.

미국육상연맹(USATF)은 6일(한국시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대표 선수 15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필릭스는 미국 대표 선발전 400m에서 6위에 그쳐 3위까지 얻는 개인 종목 출전권은 얻지 못했다.

그러나 USATF는 필릭스를 혼성 계주 멤버에 포함했다.

2003년 파리 대회부터 시작한 필릭스의 세계육상선수권 여정은 '10회 연속'으로 늘었다.

올해 4월 "2022시즌 뒤 은퇴"를 선언한 필릭스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 개막하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에서 개인 통산 19번째 세계선수권 메달과 통산 14번째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

필릭스는 세계육상선수권 최다 '메달리스트'이자 '금메달리스트'다.

필릭스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따고 은퇴했다.



이미 13개의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보유한 필릭스는 그의 마지막 세계선수권 유진 대회에서 금메달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필릭스는 올림픽에서도 총 11개의 메달(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을 수확했다.

전 세계 육상 여자 선수 중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육상 최다 올림픽 메달 보유자다.

다리가 유독 길어져 '뿔 다리'로 불림당하던 필릭스는 웨이트 중량을 늘리며 근육을 키웠고, 만 19세이던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스프린터로 자리매

김했다. /연합뉴스



### 4강 향해 날아올라

6일(한국시간) 열린 2022 윈블던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5세트 도중 슬라이딩하며 백핸드 드라이브를 성공한 뒤 바닥에 엎드려 양팔을 날개처럼 활짝 벌리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조코비치는 아니크 시니에게 3-2로 대역전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온스 자베르

## 누가 이겨도 새 역사

### 아랍 최초 메이저 4강 자베르 vs 생애 첫 메이저 4강 마리아

올해 윈블던 테니스 여자 단식 4강 온스 자베르(2위·튀니지)와 타티아나 마리아(103위·독일)의 경기에서는 누가 이겨서 결승에 가더라도 '테니스 역사'가 새로 쓰이게 된다.

자베르는 5일(현지시간) 영국 윈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윈블던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마리 보즈코바(66위·체코)를 2-1(3-6 6-1 6-1)로 물리쳤다.

이로써 자베르는 남녀를 통틀어 아랍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다.

종전에는 이스마일 엘 사베이(이집트), 히잡 아라지, 유네스 엘 아이나위(이상 모로코)가 남자 단식 8강까지 올랐고, 자베르 역시 2020년 호주오픈과 지난해 윈블던 8강에 진출한 것이 아랍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단식 최고 성적이었다.

### 윈블던 테니스 결승 길목 대결

자베르는 이미 아랍 테니스 역사를 여러 차례 세로 쓴 선수다.

2020년 호주오픈에서 아랍 여자 선수 최초로 메이저 단식 8강에 올랐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랍 남녀 선수 최초로 단식 세계 랭킹 10위 내에 진입했다.

또 아랍 선수 최초로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타이틀을 따냈다.

따라서 자베르가 결승에 오르면 메이저 대회에서 아랍 선수 최초가 된다. 이번 대회 여자 단식에는 상위 15번 시드까지 자베르를 제외한 전원이 이미 탈락해 자베르의 우승 가능성도 꽤 큰 편이다.

이에 맞서는 마리아는 두 딸의 엄마다.

2013년 첫째, 지난해 4월 둘째를 낳았다. 첫째를 낳고 코트에 복귀해 2017년 자신의 역대 최고 랭킹 46위를 찍었고, 둘째를 낳고는 지난해 7월 다

리 라켓을 잡아 이번 윈블던에서 생애 첫 메이저 4강을 기록했다.

1984년 이후 윈블던 4강에 오른 선수 가운데 마리아의 세계 랭킹 103위는 네 번째로 낮은 순위다.

2018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181위가 가장 낮은 순위로 1999년 미르야나 루치치 바로니(크로아티아)의 134위, 2008년 정제(중국)의 133위가 그 뒤를 잇는다.

또 메이저 대회 4강에 처음 진출한 나이 기준으로 마리아의 만 34세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최고령 기록이다.

만 34세에 윈블던 여자 단식 4강에 오른 선수는 마리아 이전에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빌리 진 킹, 크리스 에버트, 비너스 윌리엄스, 세리나 윌리엄스 등 '테니스 전설'들뿐이었다. /연합뉴스



타티아나 마리아

##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내정

전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영록)는 민선 8기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박정현(사진) 해남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정현(61) 상임부회장 내정자는 해남 출신으로 2011년해남군체육회 선임이사로 활동했고 2013년부터 해남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돼 10년간 장애인체육행정을 맡아 왔다. 도장애인체육회 이사과 부회장, 시·군장애인체육회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그동안 도장애인체육회 이사와



박정현

부회장, 시·군장애인체육회 협의회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군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과 소통하고, 전남장애인체육회를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 도민과 장애인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LOTTE CINEMA | 증장로관

## 즐거움 문화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2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3관 범피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5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9관 탐간: 매버릭
- 7관 씨네캐플 탐간: 매버릭, 범피도시 2, 빅사크4: 바다공룡 대모험
- 8관 씨네캐플 헤어질 결심, 범피도시 2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공연  
GAC ART WEEK  
일시 : 2022.07.06.(수)-15.(금)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